

갈치잡이 어선 화재 침몰... 6명 실종

4일 오전 우도 해상서 발생
선원들 사고시간대 취침중
베트남 선원은 모두 실종
선장과 갑판장 등 2명 구조
해경-민간어선, 수색 돌입



4일 오전 제주도 우도면 남동쪽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307해양호에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제주해경 영상 캡처

제주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어선이 불에 타 침몰하면서 선원 8명 중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8분쯤 제주도 우도면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307해양호(29t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307해양호는 갈치잡이 어선으로 지난 2일 오전 4시38분 성산포항에서 출항했다.

화재 신고는 307해양호와 함께 선단을 꾸려 조업을 하던 308해양호가 했다. 사고 당시 307해양호에는 선장 김모(59)씨와 갑판장 김모(47)씨 등 한국인 선원 3명과 응모(24)씨 등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5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불은 이날 오전 2시30분을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경에 따르면 307해양호에 설치된 AIS(선박자동식별장치)의 신호는 오전 2시34분쯤 끊겼다.

선장과 갑판장은 화재를 발견한 직후 “불이야”를 외치며 어선에서 뜬 거 나간 고무 재질의 방한제(펜더·

벃진을 보호하기 위해 선체에 두른 완충물)를 안고 바다에 뛰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닻줄과 방한제에 몸을 의지하며 버티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107수복호에 의해 오전 3시35분쯤 구조됐다. 선장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갑판장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한국인 선원 이모(57)씨와 베트남 국적 선원 5명 등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사고 직전 조타실 아래쪽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경비함정이 오전 4시38분쯤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불길이 거세게 번져 선체 전체를 뒤덮은 상태였다. 307해양호는 오전 7시38분쯤 완전히 불에 타 침몰했다. 침몰 해역 수심은 141m로 추정된다.

해경은 침몰 해역 주변에 해경 경비함정 5척과, 해군 군함 1척, 우리나라 관공선 1척, 일본 관공선 1척, 민간어선 19척,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실종 선원들을 찾고 있다. 야간에는 항공기 4대로부터 조명탄 지원을 받으며 대형함정 위주로 수색이 진행됐다.

특히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탑재한 청해전함이 급파됐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수중 수색은 기상 상황이 나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이 18℃인 점을 감안할 때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 34시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5일 오후 1시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구조 당국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즉시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를 급파하고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상민기자

■ 최초 구조 나선 선장이 본 사고현장 “도착해보니 배 거의 불에 탄 상황”

“사람 목소리 들려 확인
선장 등 2명 발견 구조”

“잠을 자다가 순간적으로 ‘불이야’ 고함을 지르고, 도저히 배에 있을 상황이 안돼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말하더군요.”

4일 오전 제주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침몰한 307해양호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107수복호 선장 김쌍근(51)씨는 이날 전화 통화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새벽 3시쯤 해양호로부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김 선장은 15분가량 떨어진 사고 현장으로 수복호의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김 선장을 비롯한 수복호 선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양호는 이미 선수와 선미 본체가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다. 수복호 선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있던 그 순간 배 앞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김 선장은 “배 앞에서 사람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선수 앞에서 앵커(뚝) 줄을 잡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장과 갑판장을 발견했다”며 “곧바로 구명조끼를 던져 이들을 구조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수복호는 해양호 주변을 두바퀴나 돌았지만, 추가 생존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해양호 선장 김모(59)씨는 머리와 손 등에 화상 피해를 입어 간단한 응급처치 후 해양수산부 무궁화12호에 인계됐다. 갑판장 김모(47)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수복호 선장은 “갑판장 말로는 순간적으로 불이 번지니까 ‘불이야’라고 고함을 외치고 선미 쪽은 가지도 못한 채 불에 뛰어내렸다고 했다”며 “다른 선원들은 미처 뛰어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해양호 선장은 제주시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호 갑판장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석기자

■ 실종 베트남 한 선원의 기구한 운명 1년전 전복사고 구조 후 해양호로 이직

4일 오전 제주도 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307해양호 화재사고로 실종된 베트남 선원 중 1명은 지난해 2월 서귀포해상에서 조업중 어선 전복사고 후 해양호로 옮겨 일하다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베트남 실종자 가족들이 제주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오가는 국내 항공사는 6일부터, 베트남 비에트 항공은 7일부터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4일 오후 서귀포수협 상황실에서 307해양호 사고수습 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사고 직후 꾸러진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제주를 찾은 실종자 가족의 통역·속식과 실종자 수색 등 사고수습에 따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어선 화재로 실종된 베트남 선원 5명 중 1명은 2015년 입국했고, 2명은 2018년, 나머지 2명은 2019년 입국해 승선원으로 일해왔다. 이 중 지난 해 1월 입국한 1명은 2월 서귀포 선

적 근해연승어선에서 조업중 전복사고를 당했으나 인근 조업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3월부터 307해양호 선원으로 일했는데 1년만에 또 어선 화재로 실종됐다.

현재 사고수습 대책본부와 외교부는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실종자 가족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편이 6-7일부턴 전면 중단되는데, 제주도는 실종자 가족들이 제주 방문을 원할 경우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종된 한국인 선원 1명의 경우 다른지방에 사는 동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들은 사고 선박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현재 대체어선을 건조할 경우에만 운차지원되는 지역농어촌기금을 노후선박 수리에도 지원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어선 화재사고 났다하면 대형... 해양호 피해 왜 컸나 선원은 잠들었고 선박 재질은 불길 취약

4일 발생한 307해양호 화재 사고에서 실종자가 많았던 이유는 선원들이 잠을 자는 새벽에 불이 난 점과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탈출할 틈이 없었던 점 등 복합적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07해양호 선원 8명은 4일 오전 1시~1시30분 사이 제주도 우도면 남동쪽 74km 해상에서 갈치 조업을 마치고 잠에 들었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갑판장은 선수(선체 앞부분) 창고에서 혼자 잤으며, 나머지 선원 6명은 조

타실 아래쪽에 마련된 선실에서 잠을 잤다.

지하 선실은 기관실 바로 옆에 있으며 선실에서 나오려면 가로·세로 74cm 해치문(틈새없이 완전히 닫히는 선박용 출입문)을 연 뒤 통로와 식당을 거쳐 선체 뒤쪽에 있는 입구로 가야 한다.

불은 기관실에서 시작해 견장을 새 없이 어선 전체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갑판장은 이날 새벽 심한 호흡 곤란 증세를 느끼고 잠에서 깬다고 진

술했다. 모든 전등이 소등돼 손으로 선체를 더듬으며 선수 창고를 빠져 나간 갑판장은 기관실 양쪽 출입문에서 심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이날 오전 3시쯤 조타실로 가 선장을 깨웠다. 이들은 “불이야”를 외친 뒤 고무 재질의 방한제를 안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이 자고 있던 선실에는 불길이 워낙 거세게 일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선원들이 선실에서 빠져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귤 신제품 분양

유리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허부피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형(무독) · 천혜형(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리실생 · 궁전(궁전변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감귤묘목

- * 유리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전 9년생, 1,2,5년생
- * 궁전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濟州) 리모델링

辛一(辛一) 祚(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도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